

---

- 충남경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

## 제3차 충남경제모니터링포럼 회의자료

---

2018.3.19.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1. 충남경제모니터링포럼 2018년 운영방향 제시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추진경과(3차년도 사업) 제시
  - 2018년 충남경제모니터링 포럼 운영방향, 향후 일정 제시
2. 충남경제 모니터링 경과보고 및 토론
  - 상시모니터링 부문별 요약
  - 핵심산업모니터링 요약
  - 심층모니터링 요약
3. 2018년 2분기 심층모니터링 주제논의
  - 경제관련 주요이슈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한 심층모니터링 주제(안)선정

## 1. 충남경제모니터링 포럼 2018년 운영방향 제시

### 1-1.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추진경과

- 1차년도 : 조기경보지수 개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틀 마련
  - 충남경제종합, 고용, 대외경제, 핵심산업 부문의 조기경보지수 개발
  -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방향, 위기대응을 위한 체계 제시
- 2차년도 : 조기경보지수 개선/운영, 충남경제모니터링 체계 구축
  - 조기경보지수 개선, 부동산 부분 확대
  - 상시, 핵심산업, 심층 모니터링의 3부문 체계 구축
  - 경제상황관리회의, 경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3차년도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위기대응매뉴얼 정비
  - 기 구축된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위기상황에 대한 점검
  - 기 작성된 위기대응매뉴얼의 구체화, 실행가능성 검토를 통한 정비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필요성 및 역할은 붙임 #2 참고

### 1-2. 2018년 충남경제모니터링 포럼 운영방향, 향후 일정 제시

- 실무자 중심의 포럼은 분기별 1회 실시, 3,6,9,12월 중순
  - 상시, 핵심산업, 심층모니터링의 결과를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발제
  - 각 기관별 업무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
  -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포럼의 운영방향, 내용 등은 재구성 가능
  - 경제상황관리회의, 경제상황점검회의의 일정에 따라 개최시기 일부 조정 가능

\* 기관장간담회는 반기별 1회 실시, 6월 12월
- 향후 참여기관의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 고용부문과 협회 등 민간영역으로의 확대도 검토 중
  - 포럼의 내용에 따라 참여기관의 범주화, 그룹별 개최도 검토
- 포럼 참여기관의 공동출판물 작성, 홍보
  - 각 참여기관별 인포그래픽 작성 후 공동출판 예정(하반기)
  - 기관장간담회 또는 경제상황점검회의시 MOU와 함께 추진 검토

## 2. 충남경제 모니터링 경과보고 및 토론

### (1) 가계와 부동산

- (물가) 물가지표는 상승폭 완화, 체감물가는 상승 중
  - 지난해 4/4분기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며 물가 상승은 완화
  - 주요 생활밀접업종의 가격 상승세는 지속
- (소비) 충남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 경기·제주·서울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
  - 주요 지출처는 식료품, 전자제품, 여행, 병원 등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도 증가
- (부동산 및 가계대출) 뚜렷한 호재 無,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감소세
  - 수도권외의 변화가 일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국소적인 모습으로 영향 미미
  -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예금은행에서는 감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증가
  - 또한, 가계의 기타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등 부채 상황이 어려운 고위험군에 대한 우려 지속

⇒ 물가의 상승폭은 완화되었으나 전반적인 체감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현재 및 향후 지출 계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의 생활형편은 쉽사리 나아지기 어려운 모습임

⇒ 또한 가계의 주요 투자처인 주택의 경우, 뚜렷한 호재가 없고 현재 미분양 등의 우려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가계대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 있음

### (2) 고용

- (양적 성장 지속) 경제활동인구·취업자수·신규구인인원 등 주요 양적 지표는 우수
  - 지난해 말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6.1%, 취업자수는 3.4%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기록
  - 다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보다는 농림어업·건설업 등이 전체 취업자수를 견인

- (신규일자리 질) 신규일자리의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우수
    - 최근 신규일자리의 제시임금 중 200만원 이상 일자리가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
    - 지난해 상반기 정규직 일자리가 큰 폭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
    - 다만, 관리자 및 전문가 직업의 취업자수는 4.1% 감소
  - (청년층 일자리)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모두 감소하며 높은 실업률을 기록
    -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청년층에서도 재취득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어 노동시장의 경력직 우대 현상이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
    - \* 고용보험 재취득자 증가의 원인으로 아르바이트 등 사회보험 적용에 따른 영향력도 일부 존재
- ⇒ 충남의 고용시장은 양적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일자리 질 측면에서의 양면의 모습을 나타냄. 공장 등 제조업 기반의 지역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가 지역의 경제회복을 대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등이 전체 취업자수를 견인하는 모습임
- ⇒ 또한 희망임금과 제시임금의 괴리, 고학력 근로자에 대한 낮은 수요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의 개선 조짐은 미미
- ⇒ 다만, 신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은 일부 개선, 신규구인 증가율 전국 3위, 연령별 순이동 증가, 경력직 근로자의 순유입 지속 등 지역의 인재유인 가능성은 높은 편임

### (3) 산업활동

- 석유화학, 반도체 호황, 철강 약진, 디스플레이 유지, 자동차는 부진
  - 반도체 슈퍼호황기 지속, 충남의 전체 수출을 견인
  - \* 전년대비 약 90% 이상의 증가세 지속
  - 정유 및 석유화학은 지난해 정기보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의 정제마진 상승으로 수출 호조
  - \* 석유제품(21.3%), 석유화학중간원료(24.4%), 기초유분(57.3%), 합성수지(15.0%) 수출 증가
  - 평판디스플레이는 최근 OLED 탑재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조정되는 모습

- 자동차부품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연말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 미미, 한국GM사태 발발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 (투자동향)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잔액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 BSI 실적 정체,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증가 등 혼재된 모습
  - (향후전망) 당좌거래정지 기업수 감소, 신설법인수 증가 등 긍정적인 모습이나 제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위축
- ⇒ 지난해 석유화학과 반도체 호황, 철강산업이 약진하며 전반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자동차부품산업의 위축 지속, 디스플레이는 제자리 걸음
- ⇒ 경기회복의 뚜렷한 신호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동향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며 위축되는 분위기

#### (4)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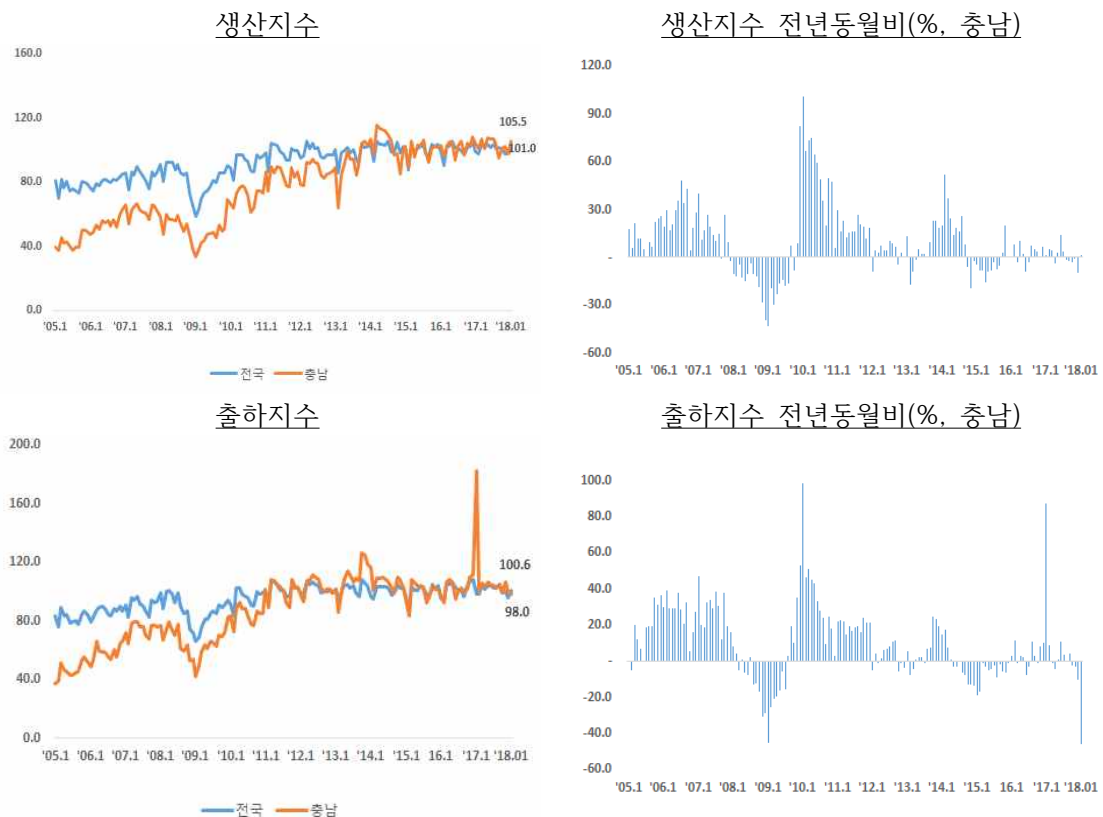
-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사업자수 증가
  - 소상공인 관련 업소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기술위주의 업종이 선전, 최근 음식배달에 앱이용 등으로 배달업종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
  - 소상공인의 체감·전망 지수는 암울
- 전통시장은 주요 상점가보다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으로 위축
- 지역의 창업환경은 다소 나빠진 것으로 판단
  - 창업률은 비수기로 접어들며 위축되는 모습, 더불어 폐업률도 증가하며 악화되는 모습
  - 주요 소규모 매장의 임대료 증가세는 지속, 군단위에서는 변화요인 자체도 정체되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의 위축이 나타나는 정도

## 2-2. 핵심산업모니터링\_철강산업 요약

### (이슈1) 현대제철 안전사고 발생 : 공장가동 중지 → 생산 및 판매 부진

- 지난해 12월 현대제철 안전사고 발생(1년 사이 3번의 사망사고)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A열연공장 작업 중지 + 당진공장 B지구 열연 공장과 C 지구 열연공장에 작업중지 명령(12.18일)
- 당진공장 전체의 약 11.8% 차지, 공장 4곳 중지 → 12.21일 B·C지구 해제 → 1.13일 A열연 생산 재개
  - \* '17.12월 전년동월대비 생산 9.4%, 출하 10.7% 각각 감소 → 금년 1월 출하 46.3%감소, 재고 30.4% 큰 폭 증가
  - \* 현대제철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기업 철강재 수급 문제 등 도미노 현상 발생

<그림> 생산 및 출하 동향



자료: 통계청, 광공업동향조사, 원지수

(이슈2)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 실질적인 강관업체의 타격 예상, 대기업 등 전반적인 철강산업 영향력은 미미

-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백악관 제출(2.16), 17일 발표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고관세 부과 결정(2안, 3.9) → 3.23일 시행
- 우리나라 대미 철강제품 수출품 중 강관이 약 50%를 상회
  - 충남 지역의 대표 강관업체는 “휴스틸”로 당진공장에서 전체 물량의 약 75%를 생산, 수출이 약 57%를 상회
  -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강관제품의 미국 수출이 2017년 급격하게 증가, 휴스틸은 전체 수출 중 약 70~80%를 미국에 의존
  - \* 미국 수출 봉쇄시 직접적인 생산 충격은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
- 다만, 낮은 대미 수출 비중과 내수용 중심의 철강재 생산으로 철강업계 전체로의 확산은 미미할 듯
  - 우리나라 전체 대미 수출액 중 충남 비중은 5.6% 수준
  - 산업연관분석 결과, 충남의 철강1차제품 생산물은 대체로 충남내 소비, 전남과 경북 지역으로 이출
  - 현대제철의 강관 생산은 울산, 동부제철은 인천에서 생산
- 또한 철강산업은 규제 노출 빈도가 높은 편, 대기업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중
  -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은 지난해부터 대미 수출 비중을 줄여오는 중
  - \* 미국 등 수입국의 한국에 대한 규제 현황을 보면, 광물·금속제조업이 97건으로 전체의 약 50%를 상회(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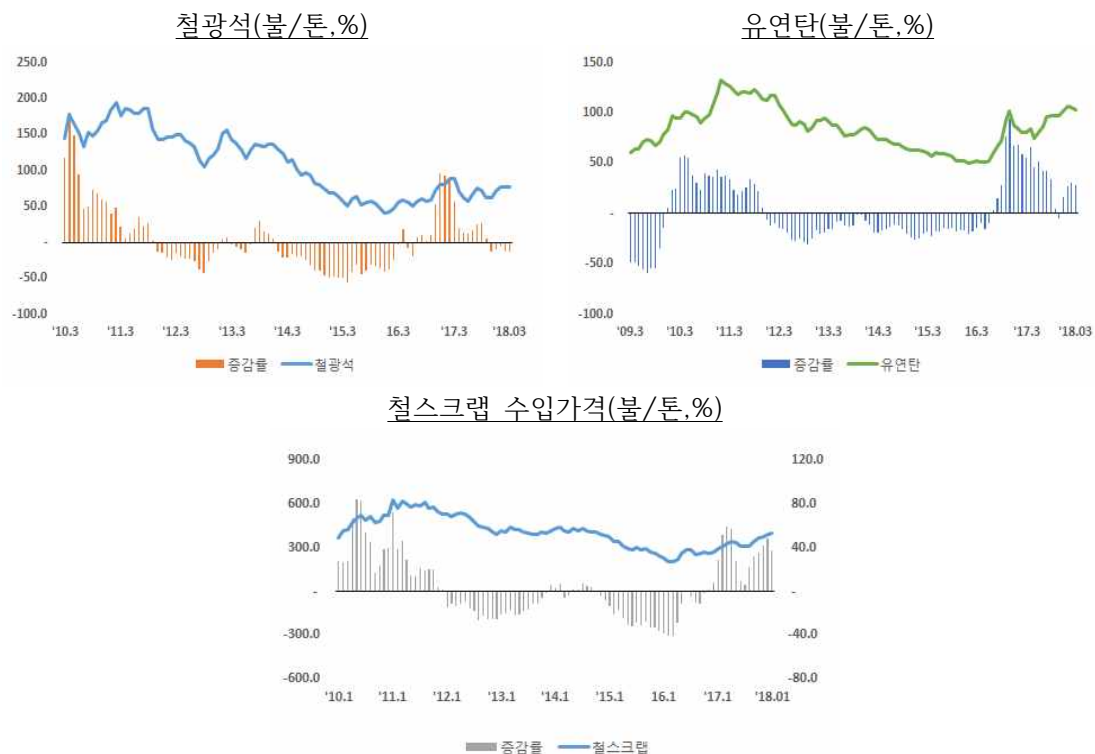
⇒ 3.23일 이후 현재까지의 계약건과 거래처와의 관세납부 문제 등 여러 사안이 미해결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

(이슈3) 제선원료 가격 강세 : 철강재 가공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

- 철광석·유연탄(원료탄) 등 제강원료 가격 급등
  - 지난해 철광석의 평균가격은 톤당 71.3불로 2016년에 대비 23.1% 상승, 최근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감
  - 유연탄의 지난해 평균가격은 톤당 88.3불로 2016년 대비 34.1% 상승

- 국내 수급 비중이 높은 철스크랩의 경우, 최근 자동차업계의 파업과 GM군산공산 폐쇄 등으로 수급에 제동이 걸리며 수입 비중을 늘려가는 중
- 철스크랩 지난해 평균 수입가격은 334.2불로 2016년 대비 33.5% 상승
- 지난해 제강원료 가격 약 30%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
  - 열연·철근 등의 국내유통가격에 제강원료 상승분 전가
  - 현대제철 등 제강업계 수익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재가공 철강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 \* 유사한 기술력 수준에서 가격경쟁력 악화는 시장경쟁력 악화로 이어갈 가능성 다분

<그림> 제강원료 가격 동향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KOMIS한국자원정보서비스 / 한국무역협회(HS코드 7204)  
 주: 가격기준, (철광석) Iron Ore Fines cfr main China port 62% -daily- \$/dry metric tonne  
 (유연탄) FOB Newcastle 6,300kcal/kg GAR

- ⇒ 철강산업은 2015년 공급과잉 이후 2016년까지 위축, 2017년 회복되는 모습
- ⇒ 지난해 국제유가 안정과 건설업 경기에 힘입어 철강산업 약진을 기록
- ⇒ 그러나 금년 들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원료가격 상승, 전방산업의 위축 등이 장기화되며 산업전반에 대한 위협도가 높아진 상태



⇒ 고관세, 원료가격 상승 등 대표적인 기관산업인 철강산업의 위축 우려는 가격경쟁력에서 발생,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다소 낮아진 상황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회복과 중국의 정책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

## 2-3. 심층모니터링 요약

### (1) 주제선정 배경

- 2018년 1분기 심층모니터링 주제 :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 자동차부품산업 주제선정 배경
  - 지난해 4분기 상시모니터링 및 핵심산업모니터링 결과 자동차수요감소, 재고증가 등 자동차부품산업에 부정적 신호 제기
  -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제조업 전반에 대한 위기로인 감지
  - 최근 한국GM군산공장폐쇄 등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에 악영향 우려

### (2) 자동차부품산업 현황(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산업의 변화 : 성장위축, 경기지역 사업체수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큰 폭 감소
  - 최근 사업체수는 감소, 종사자수는 소폭 증가
  - 사업체수 전국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지역(2016년 기준 18.2%)의 최근 2년 연속 사업체수 감소 ⇒ 전국 흐름과 유사
-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의 변화 : 산업전반 성장, 영업이익은 감소, 소기업 증가
  - 충남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모두 성장, 규모가 작은 사업체수 증가
  -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비용 및 인건비 증가율이 높음, 영업이익 감소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의 주요 지표 추이(단위 : 개,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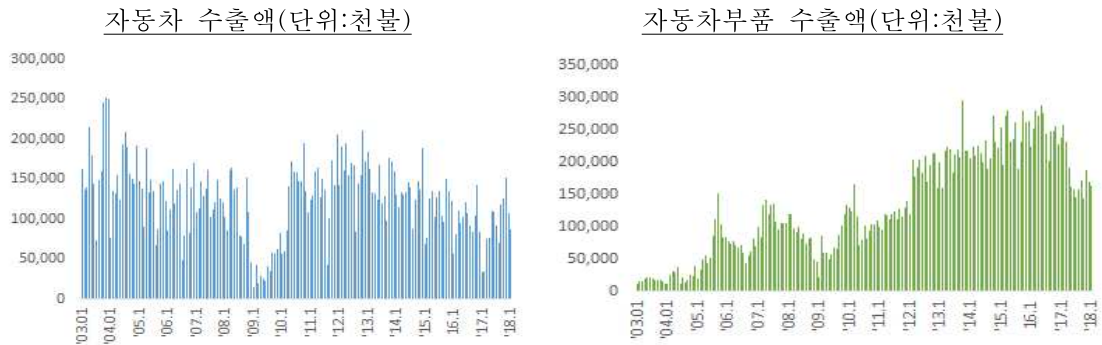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인건비	영업이익
2010	437 (123)	23,729 (54.3)	10,545,104 (24,131)	10,052,078	964,892 (40.7)	493,026 (4.7)
2015	845 (337)	35,800 (42.4)	16,402,515 (19,411)	15,977,875	1,843,409 (51.5))	424,640 (2.6)
연평균증가율	(14.1)	(8.6)	(9.2)	(9.7)	(13.8)	(-2.9)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10년, '15년), 자동차부품제조업 주요지표

주 : 각각의 ( )는 다음에 해당함. 사업체수는 9인 이하,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단위사업체당 수치, 인건비는 1인당,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률

- 충남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대비 26.5% 감소
  - 완성차 수출 부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 그러나 자동차 부품은 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1.0% 감소

#### 충남 완성차 및 부품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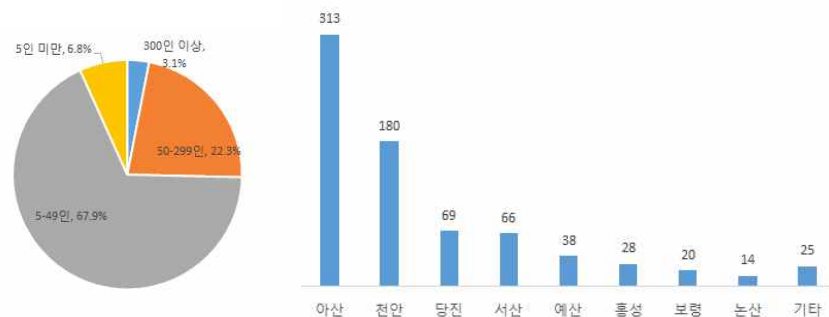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 ※ 충남경제 조기경보지수 정상수준 유지 : 2018년 1월 기준 16.9
  -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상수준 유지
  - 최근 자동차 엔진 및 차체제조업의 재고수준이 높아지면서 실물분야 조기경보지수 높음
  - 완성차 업체의 잦은 파업과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도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냄

#### (3) 충남 자동차 관련 공장등록정보(팩토리온, FEMIS, 2018년 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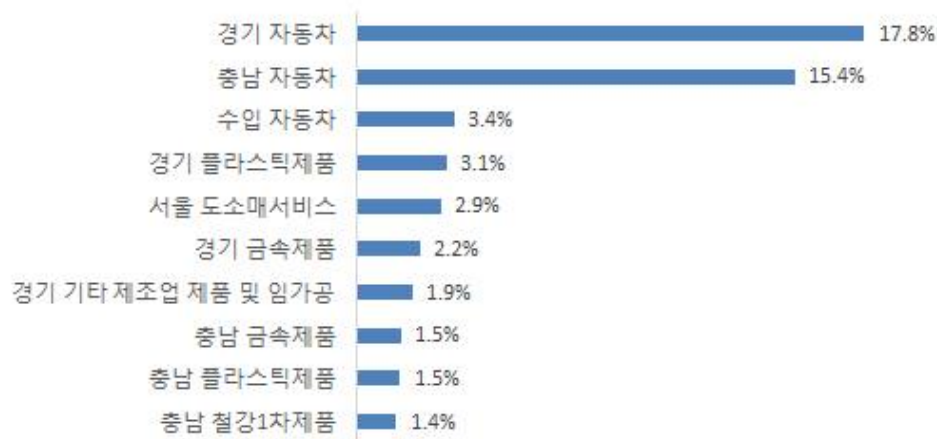
- 충남 자동차관련 공장 753개소 입지
  - 개별입지 517개소, 계획입지 236개소
  - 전체 공장 중 74.6%는 종사자수 50인 미만
  - 종사자수 500인 이상 공장은 6개소
- 대부분 북부권에 입지 : 아산, 천안에 집중
  - 전체 자동차관련 공장 중 83.4%가 북부권에 입지



#### (4)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의 시도간 이출입(지역산업연관분석, 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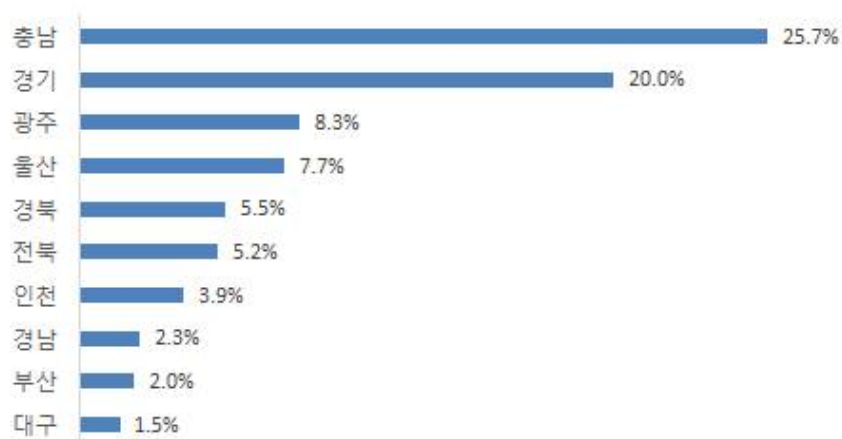
-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이입
  - 자동차부품산업의 시도간 연관분석 결과, 충남은 경기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 플라스틱 제품산업, 금속제품산업 등과 연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 R&D와 유통은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부터의 연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충남 자동차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화의 산업별, 지역별 비중(상위10개)



- 충남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 ⇒ 충남 지역 내 소비, 경기, 광주 지역으로 이출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생산된 재화는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이 높고, 경기, 광주 지역 순으로 이출됨

충남 생산 자동차부품의 지역별 이출 비중(상위10개, 서비스업 제외)



⇒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은 경기지역과 밀접, 경기지역 관련산업 침체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5)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 현장방문 및 인터뷰 결과(요약)

### ■ 자동차부품 산업의 위기

=> 자동차 수요 감소, 중국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 자동차부품 산업의 위기는 결국 자동차 수요 감소로부터 시작
  - 수출감소, 내수감소 등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는 GM군산공장폐쇄와 같은 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완성차업체의 생산량 감소로 전체 자동차부품산업의 침체 야기
  - 자동차부품 산업의 침체는 곧 금융권 대출의 문턱이 높아져, 신규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 \* 신규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 개발위한 자금확보가 중요하나 금융권 대출 제한
-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수준에 근접, 대규모 생산, 가격경쟁력 등에서 중국에 밀림
  -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이미 기술수준은 우리나라 근접
  - 특정분야 업체들이 한 지역에 다수 집적되어 가격구조, 기술수준 등을 맞출 수 있는 선택 폭이 넓음, 실제로 벤츠 등 해외업체가 와서 적정선의 업체를 선정 후 계약
  - 기술인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인력이 양성되고 있음
  - FTA이후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국내 시장 잠식 우려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문제, 근로자 간 상대적 박탈감 발생
  - 기존 임금인상비율보다 높은 최저임금인상비율,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던 기술직급과 단순생산직과의 임금격차 사라짐
  - \*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었던 시급이 큰 폭으로 상승된 최저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에 수렴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역전되는 현상 발생
  - \*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야간, 휴일 근무를 선호함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내국인근로자가 상대적 박탈감 느낌
  - \* 일본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임금을 별도로 관리, 내국인근로자의 70% 수준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하락, 대기업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
  - 근로시간단축은 곧 임금하락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이탈 발생
  - 대기업 근로시간단축 7월부터 적용, 300인 이하는 유예하고 있으나, 현실은 대기업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하청업체
  - \* 완성차업체의 근로시간단축으로 생산량 감소는 곧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생산량 감소와 직결됨

## ■ 자동차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

=> 대기업(완성차업체) 의존형 산업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심화

- 완성차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업체들의 단가(원가)절감을 위한 경쟁유도
  - 부품업체들의 단가(원가) 경쟁은 결국 업체의 수익절감으로 이어지고, 신규개발이나 기업성장을 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짐
    - \* 완성차업체에 부품 납품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 단가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과도한 단가경쟁에 대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도 쉽지 않음
  - 대기업과 신규개발 참여시, 특허권은 대기업, 참여기업은 2~3년 기술 사용권 부여
    - \* 2~3년 후, 다시 타 업체와 단가경쟁 시작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심화
  - 완성차업체가 100이라면, 1차 하청업체인 부품업체는 40, 중소기업은 30수준
    - \* 임금격차 뿐 만 아니라 복지, 기업환경의 차이가 큼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에도 영향

## ■ 기타 자동차부품 업체의 애로사항

=> 각종 규제와 관련된 문제, 업종 전환에 따른 문제

- 인접지역 토지구제에 따른 확장 불가
  - 개별입지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생산라인 확대를 위해 인접지역 토지매입 또는 활용이 필요하나 토지구제로 제한
    - \* 일부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과 민원문제 해결, 그러나 외부인의 신고로 불가능한 사례
- 외국인노동자(경력직) 고용규제로 지속고용 불가
  -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고용(10년)을 통해 기업의 필수인원으로 양성, 경력직으로 지속고용을 원하나, 비자문제로 추가고용 불가
    - \* 추가고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동남아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도 고려
- 정부 R&D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부처간 차이, 통합 필요
  - 정부 R&D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 따라 진행방식, 관련규제, 행정절차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소요 발생, 일원화된 관리 사이트 필요
    - \* 예산 이월문제에 있어 산자부는 불가능, 중기부는 가능
-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 미래자동차로의 기술변화 등으로 업종전환 필요
  - 쇠퇴업종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고, 관련 장치에 대한 해외 판로지원 등이 필요
  - 업종전환을 위한 로드맵, 기술지원 등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이 중요

■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 전략적 제후를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 대체/재제조부품산업 활성화

- 인수합병, 전략적 제후 등 부품업체간 통합, 대형전문부품업체화
  - 중소부품업체들의 효율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 성공사례 탐색,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대체자동차 부품산업,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 등 적극 추진
  -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대체자동차 부품산업과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유도 필요, 지역 내 관련 기관 유치 등 노력
    - \*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 추진 중
    - \* 서울 재제조 혁신센터 사례 검토 필요
    - \* 지역 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석문산단활용방안 등)
- 중국 성장, 미국 통상 압박 등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 정부차원의 대응과 결과에 지속적 관심, 모니터링 중요, 지자체 차원에서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성, 경쟁력 강화 방안 공동 대응
  -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역제안하는 한편, 수출판로 확대,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기존의 지원정책에 대한 제고 필요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쇠퇴산업 검토, 업종전환 및 기술개발 지원
  - 자동차부품 산업 시장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쇠퇴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 추진
    - \* 쇠퇴업종의 폐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대응방안 수립, 적극지원 필요
  - 충남지역에 입지한 다수의 대학을 활용,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자동차부품산업의 신기술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3. 2018년 2분기 심층모니터링 주제(안) 논의

주제 1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	주제 2 청년층 일자리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분양주택 규모 최고치 갱신</li> <li>- 미분양주택은 금년 1월 기준 전년동월비 24.8% 증가</li> <li>- 주요 지역으로는 천안과 보령, 예산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화되는 모습</li> <li>- 수요침체로 천안·아산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공주·논산지역은 정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분기 취업자수 감소, 실업률 증가</li> <li>-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 청년층 일자리 현황은 나아지지 않는 모습</li> <li>- 다만, 청년층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일자리 질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적 효과일 가능성 높음</li> <li>-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청년층 내부의 일자리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li> <li>- 상반기 대기업 등 일자리 공채 시즌 돌입, 이후 변화 모니터링 필요</li> </ul>
주제 3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지역 철강산업의 변화	기타안전

기타안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자동차 및 철강 산업 위기관련 충남경제모니터링 상황점검 결과보고(요약)

GM군산 공장폐쇄?!,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진단요약
<p>□ 인접 지역경제 간접적 영향,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은 영향력 미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 지역경제 침체로 인접지역인 서천지역의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 예상</li> <li>- 군산공장은 지속적인 생산수요 감소로 폐쇄결정 이전에 하청관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부 있었으며, 충남에 입지한 하청업체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li> <li>* 산업연관분석 : 충남 → 전북으로 이출되는 비중은 5.2%에 불과</li> <li>그러나, 경기지역과는 20.0%로 높은 연계성을 보임</li> <li>- GM보령공장은 자동변속기 생산라인으로 향후 10년치 물량 확보 등 안정적 운영</li> <li>* 2027년까지 조업물량 확보, 그러나 신규투자 전무, 본사 영향 절대적</li> </ul> <p>⇒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은 경기 지역과 연계성이 높음, GM의 한국사업 철수 등으로 GM부평공장에 영향이 있다면, 충남에 입지한 다수의 하청업체에 외부 충격으로 작용 가능,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p> <p>⇒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으로 인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 대비 필요</p>
美 통상압박 영향, 충남 철강산업 진단요약
<p>□ 강관업계 직접적 영향권, 충남 전체로는 영향력 미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미국의 주요 타겟은 “강관”으로 충남 입지 중견기업 중 ‘휴스틸’이 대표적인 피해예상 업체로 판단</li> <li>* (휴스틸) 전체 매출액 중 약 57.1%가 수출, 미국 비중 약 70~80% 예상</li> <li>당진공장의 생산실적이 휴스틸 전체의 약 74.5%를 차지</li> <li>- 충남 전체 철강제품의 대미수출 비중은 낮은 편, 제한적 영향 예상</li> <li>* 우리나라 철강제품 수출액 중 충남 비중 약 3.9%에 불과</li> <li>* 우리나라 대미 철강제품 수출액 중 충남의 비중은 약 5.6%로 낮은 수준</li> <li>- 충남 입지 대기업인 현대제철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 수출다변화로 미국의 영향력 축소 중</li> <li>* 산업연관분석 : 충남 1차 철강제조업은 중간재화의 약 45.9%를 지역내에서 조달, 지역 내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의 38.9%가 지역 내에서 소비</li> <li>수출은 3.3%에 불과</li> </ul> <p>⇒ 규제안 발표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파악,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 제시가 중요</p> <p>⇒ 미국 관세인상 등에 대비한 대기업 수출다변화 시도 중, 그러나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출다변화 여력 부족, 정책적 지원 필요</p> <p>⇒ 일시적인 경기 위축시 고용노동부 연계, 유휴설비 및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 필요</p>



붙임 #2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필요성 및 역할

